

모두 하나 된 '박용택 광주 고별 이벤트'



KIA와 LG 선수들이 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박용택 고별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8일 LG전 경기 전 특별한 행사 준비
양현중, 박용택에 꽃다발 전하며 기념 촬영
KIA 제안에 LG 선수 함께...승패 떠나 혼혼

승자와 패자가 갈렸지만 경기 끝난 후 팬들은 함께 웃었다.
지난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13차전이 열렸다. 2.5경기 차 공동 4위를 쫓던 KIA와 1위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LG의 중요한 일전이었지만 경기 전 '작'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이는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현역 최고참이자 'LG의 심장' 박용택이었다.
이번 2연전은 LG의 올 시즌 마지막 광주 원정경기다. 박용택에게도 현역 마지막 광주 경기가 되는 셈이다.
KIA는 2002년 LG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뛰어들어 많은 족적을 남긴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경기 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화원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고별 행사'가 마련됐다. KIA를 대표하는 윌리엄스 감독과 '주장' 양현중이 박용택에게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그리고 박용택을 응원하는 문구를 띄운 전광판 앞에서 선수들의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원래는 KIA 선수들과 박용택의 기념 촬영이 예정됐지만 양현중이 LG 선수들도 함께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작'이 '동료'가 돼 같은 그라운드에 섰다.
혼혼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의미 있는 순간을 남긴 두 팀은 이내 승리를 위한 열투를 벌였다.
경기는 터커의 2타점 적시타와 전상현의 1.1이닝 세이브를 앞세운 KIA의 3-2 승리로 끝났다.
KIA 팬들은 대체 선발 양승철이 출격했던 경기에서 귀한 승리를 안으면서 활짝 웃었다. LG 팬들은 실책이 빌미가 돼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자신들의 '특별한 선수'가 특별한 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웃었다.
선수도, 팬도 하나가 됐던 순간. 혼혼함과 감동이 있던 자리였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 KBO리그 큰 선수의 마지막 광주 원정길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줄 팬들이 관중석에 없었다는 점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9일 "모든 선수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팀으로서도 박용택 선수의 커리어라든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며 "경기장 가득 팬들이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주말 복귀

캐치볼 훈련 시작...신시내티와 12일부터 3연전서 등판 유력

신장 경색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복귀를 위해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김광현은 최근 홈구장인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9일(한국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더블헤더에 앞서 그라운드와 나와 캐치볼 훈련 등을 하기도 했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실트 감독은 이날 경기 전 현지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김광현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며 "병원 검사를 받고 이에 따라 복귀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실트 감독은 "캐치볼, 룭토스, 볼펜 피칭의 수업을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현은 지난 5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신장 경색 진단을 받고 혈액 희석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통증은 잡혔고, 김광현의 몸 상태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김광현은 부상자 명단 등재가 지난 선발 등판 직후인 3일로 소급 적용되면서 12일부터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 3연전부터 다시 실전 등판할 수 있다. 그는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 전까지 5경기에서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0.83으로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김민식 "내 안에 가을잔치 DNA 있다"

KIA 올 시즌 3포수 체제
한승택·백용환과 선의의 경쟁
투수들, 김민식과 환상호흡 극찬
공·수서 안정적 경기력
2017년 V11의 중심 포수
"팀 5강 반드시 올려놓겠다"



시작은 늦었지만 김민식의 2020 시즌이 강렬하게 흘러가고 있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는 진갑용 배터리 코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방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주전 선수로 발돋움한 한승택, 캠프에서부터 눈길을 끈 백용환 두 축으로 이뤄졌던 포수진은 지난 7월 12일 김민식의 합류로 '3포수 체제'로 전환됐다.
체력 안배와 라인업 운용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한 '3포수 체제'는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체력적으로 지쳐있던 한승택도 김민식의 합류로 잠시 호흡을 고르기도 했다.
시즌 첫 경기에서 5타점을 찍을이하면서 주인공이 됐던 김민식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대타로도 선택 받을 정도로 타석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수로도 투수들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공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8일 경기에서도 김민식은 승리의 조연이 됐다.
2회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서 안타를 만든 김민식은 4회 1사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측 2루타를 날리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8회말 수비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3-2의 1점 차 리드가 전개된 8회말 2사 만루 위기가 찾아오자 윌리엄스 감독이 한 박자 빠르게 마무리 전상현을 마운드에 투입했다.
초구 불로 시작된 라모스와의 승부. 파울 이후 볼 2개가 들어갔고 다시 파울이 나오면서 베이스도, 볼카운트도 가득 찼다.
올 시즌 LG와 단 한 차례 만난 전상현은 앞선 대결에서 라모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4-2의 리드에서 9회말 등판, 라모스에게 솔로 포를 맞는 등 흔들리면서 마무리로 변신 후 첫 볼

론세이브를 기록했다. 팀은 김현수의 끝내기 안타에 울어야 했다.
다시 만난 라모스는 이날 경기까지 31개의 홈런을 날린 LG의 강타자. 전상현은 몸쪽 쪽 찬 코스로 공을 집어넣으면서 라모스를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승패가 갈린 지점이였다.
전상현은 경기 끝난 후 "마무리로 처음 불려오면서 라모스한테 홈런 맞았는데 다시 맞더라도 승부하지는 생각으로 했다"며 "(김)민식이 형 리드를 믿고 던진 게 좋게 결과가 나왔다"고 웃었다.
스플리터로 결정적인 1구를 이끈 김민식은 반대로 "상현이가 잘 던졌다"며 전상현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상현이 불이 좋았다. 1B 3S에서도 아마 다른 경우였으면 변화구로 갔을 것인데 직구가 좋아서 직구로 갔다. 파울파울 나오다가 직구 연타야 본 상대라서 (스플리터로) 승부하게 됐다"며 "공 하나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모두 긴장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잘 던져준 것 같다"고 말했다.

타석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비결로 꼽았다.
김민식은 "코치님들은 내가 잘 칠 수 있는 것을 치라고 하신다. 할 수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률적으로 가져가자고 말씀하신다"며 "속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다. 이걸 안 놓치고 가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감독님께서 중요한 타선 때 대타 안 내보내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기회를 주신다. 한 타석, 한 타석 결과를 의식하기보다는 게임의 전체를 보고 그날을 보고 하니까 편하게 잘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승 포수'로 2017시즌 가을잔치의 중심에 있던 김민식은 개인 목표보다는 팀의 목표를 향해 남은 시즌을 보낼 계획이다.
김민식은 "지금처럼 페이스 유지하면서 팀이 5강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호수의 여왕은 나"

LPGA 인스퍼레이션 오늘 개막...김세영·박인비 등 출전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박성현(27)이 복귀전인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을 앞두고 더운 날씨에 대한 자신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성현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에서 개막하는 ANA 인스퍼레이션에 출전한다.
박성현이 LPGA 투어 대회에 나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현은 "오랜만에 LPGA 투어 대회에 나와 다소 긴장된다"며 "왼쪽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 나흘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어깨 상태에 대해 "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엔 별 통증이 없었다"며 "하지만 스윙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 쪽에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몇 달 간 치료를 받았다는 박성현은 "한 동안 연습도 하지 못했지만 휴식기를 오래 가지면서 지금은 다 나은 상태"라며 "몇 주 전부터 훈련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ANA 인스퍼레이션은 대회 기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성현은 관련 질문을 받고 "사흘 전에 대회장에 도착했고, 어제 18홀을 돌았는데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서 힘들었다"며 "물을 거의 7~8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답했다.
우승자가 '포피스 폰드'라는 이름의 연못에 뛰어 드는 전통이 있는 ANA 인스퍼레이션을 앞두고 만일 우승한다면 어떻게 뛰어든 것인지 묻는 말에 박성현은 "여러 선수의 입수 장면을 봤는데 나도 멋있게 뛰어든다고 싶다"며 "만일 마지막 날 기회가 온다면 캐디와 상의해야겠다"고 말했다.
박성현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 18분에 하타오가 나사(일본)와 1라운드를 시작한다.
김세영(27)은 11일 오전 5시 27분 넬리 코르다(미국)와 함께 1번 홀을 출발한다. 박인비(32)는 11일 0시에 브리티니 린시컴(미국)과 10번 홀에서 티샷한다.

/연합뉴스